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FTA 연구동향 분석

임목삼* · 최미수**

-
- I. 서론
 - II. FTA 현황 및 효과
 - III. FTA 기존 연구
 - IV. FTA 연구동향 분석 및 시사점
 - V. 결론
-

주제어 : FTA,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 리스크관리

I. 서론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 건수는 중남미(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의 체결(2018년 2월)을 포함해 FTA 체결 건수 16건(57개국) 발효건수 15건(52개국)으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15년 만에 괄목할 만한 FTA 경제영토 확산 및 FTA 활용성과를 이뤄내 1인당 GDP 3만불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¹⁾

수많은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FTA 상대국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

*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제1저자), E-Mail : mslim@origin.or.kr

**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 cms@sdu.ac.kr

1) 임목삼·임성철, “FTA에서 원산지 증빙서류 증명 책임에 관한 일고”, 무역상무연구 제7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8. 2, p. 269.

적 요인은 향후 FTA를 추진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발효 중인 FTA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그 동안 FTA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FTA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월 국회전자도서관의 검색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활용, 분석했다. FTA라는 주제어 검색을 통해 나온 결과는 총 18,187개이고 그 중에서 학위논문 1,490개와 학술지논문 2,086개 총 3,576개 논문을 분석하였고 학위논문과 중복되는 학술지논문은 제외하였다.

FTA 검색 논문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첫째, FTA 수출성과 등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둘째, FTA 산업별 효과를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에 대해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제도를 포함한 원산지활용과 원산지검증 및 원산지 리스크관리를 포함한 원산지검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넷째, FTA 체결 지역으로 미국, 중국, EU 등으로 지역별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전반적인 FTA 현황 및 효과에 대해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FTA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 FTA 연구동향을 분석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II. FTA 현황 및 효과

1. FTA 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2018년 5월말 현재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및 EU 및 중국과의 FTA를 포함하여 총 16개 국가 및 경제공동체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총 15건(52개국)의 FTA가 발효 중에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FTA는 한·중·일, 이스라엘, RCEP 등 3건이며, 협상재개를 위한 여건준비 중인 FTA는 일본, 인도네시아, 멕시코, GCC 등이다.

본 장에서는 전체적인 FTA 활용 효과 등을 우선 소개하고 칠레를 포함하여 EFTA, 아세안, 인도,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상위 10대 수출입품목 중심으로

FTA에 기반한 산업효과를 조명하도록 한다.

FTA 통계자료는 관세청 통계자료와 관세연감 2017의 자료를 주로 인용하였다.

<표 1>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구분	FTA 상대국가	교역비중 (2016기준, %)
협정발효 (15건, 52국)	칠레, 싱가포르, EFTA ²⁾ , 아세안 ³⁾ , 인도, EU ⁴⁾ ,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67.8
협상진행 (5건, 23국)	한-중-일, RCEP ⁵⁾ , 중미(체결, 발효 전) ⁶⁾ , 에콰도르, 이스라엘	8.6
여건조성 (4건, 9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GCC ⁷⁾ , 일본	7.8
합계		84.2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전체교역의 약 68%이고 장차 FTA 체결예정국까지 포함하면 84%에 달할 정도로 FTA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다.

FTA 발효국과의 년도별 교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교역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은 전년 기준으로 76%에 달하고 있다.

<표 2>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구분		\`11	\`12	\`13	\`14	\`15	\`16	\`17
FTA 발효국	수출	1,457	2,044	2,163	2,467	2,358	3,504	4,750
	수입	1,204	1,666	1,710	2,048	1,824	2,610	3,266
FTA 발효국과 교역		2,661	3,710	3,873	4,515	4,182	6,114	8,016

- 2)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3)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 4) EU(European Unions) :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등 28개국
- 5)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한, 중, 일, 인도, 뉴질랜드, 호주
- 6) FTA 협정 체결 중인 중미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7)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구분		'11	'12	'13	'14	'15	'16	'17
전체	수출	5,552	5,479	5,596	5,727	5,269	4,955	5,737
	수입	5,244	5,196	5,156	5,255	4,365	4,061	4,785
전체 교역		10,796	10,675	10,752	10,982	9,634	9,016	10,522
FTA/전체 비중(%)		24.7	34.8	36.0	41.1	43.4	67.8	76.2

* 자료 : 관세청 FTA포털 통계자료 인용(fta.customs.go.kr visited in 2018. 5).

FTA가 확산됨에 따라 FTA 원산지 적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원산지 검증도 증가추세에 있다.⁸⁾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부적정한 FTA 특혜관세의 적용으로 추정당한 건수가 1,824건, 금액으로 약 2,442억 원을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검증에 의한 추징의 대부분은 EU, 미국, ASEAN, EFTA, 중국과의 FTA 교역에서 나타났는데 EU는 1,184건 1,235억원, 미국은 270건 538억원, ASEAN은 192건 537억원, 중국은 '16년 한해만 75건 31억원을 추징하여 전체 추징 건수의 97% 추징 금액의 99%가 집중되었다.

EU, 미국, ASEAN, EFTA, 중국과의 FTA 교역은 FTA 발효국 전체 수입 금액의 90% 내외를 점유하고 있으며, FTA 특혜 수입 비중 또한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여 교역량과 원산지 검증 건수나 추징 금액이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표 3> FTA 원산지 검증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검증유형	구분	2013	2014	2015	2016
수출검증	업체수	242	298	294	210
	C/O건수	1,198	3,282	1,744	1,119
수입검증	업체수	476	826	1,038	892
	C/O건수	4,681	11,636	13,765	9,260
추징현황	건수	330	442	546	506
	금액	45,429	76,114	55,067	67,571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8) 임복삼·임성철, 전개논문, p. 271.

2. FTA 효과

1) 칠레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교역량은 전체 교역의 10% 미만이나, 양국의 FTA를 계기로 무역규모가 '0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양국의 주요 교역 품목은 FTA 체결 당시와 크게 차이점이 없이 자동차와 동(銅)을 주로 수출입하고 있다. 즉 한국은 칠레를 상대로 자동차나 석유제품과 같은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동 등의 광물과 농축임산물을 수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원 확보와 동시에 시장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어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 4> 한-칠레 교역 현황

구 분		교역규모(억 불)			
		교역	수출	수입	수지
칠레	2013	71	25	47	△22
	2014	69	21	48	△27
	2015	62	17	44	△27
	2016	53	16	37	△21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표 5> 한-칠레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자동차	787.9	-8.9	48.9	동제품	1,405.5	-6.9	37.9
석유제품	118.4	62.0	7.3	동광	559.9	-98.5	15.1
합성수지	77.5	-52.7	4.8	기타금속광물	484.2	17.6	13.1
자동차부품	71.3	14.3	4.4	제지원료	240.2	-17.9	6.5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52.0	57.7	3.2	정밀화학원료	197.6	28.2	5.3
건전지및축전지	37.9	-3.9	2.4	곡실류	167.2	-34.2	4.5
건설광산기계	25.6	-18.3	1.6	육류	121.9	-5.8	3.3
고무제품	25.4	-21.5	1.6	목재류	114.0	-15.1	3.1
철강판	25.9	-30.6	1.4	철광	84.2	11.3	2.3
시멘트	22.3	-49.8	1.4	아연광	64.6	-55.3	1.7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77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92.8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2) EFTA

EFTA는 칠레의 경우와 같이 전체 교역의 10% 미만의 경제비중이나 공산품 중심의 수출 및 하이테크 산업 중심의 수입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선진국형 FTA 경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다.

무역수지는 수입이 수출에 비해 많아 왔지만 ‘15년 이후 선박 등의 수출이 다시 견인차 역할을 하여 무역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주요 교역품목은 선박류와 자동차 등을 주로 수출하고 시계, 의약품, 선박부품, 어류, 광학기기, 의료용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선박을 제외한 주요 교역품목은 모두 수입이 수출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한-EFTA 교역 현황

구 분		교역규모(억 불)			
		교역	수출	수입	수지
EFTA (4국)	2013	88	24	64	△40
	2014	77	20	56	△36
	2015	114	63	51	12
	2016	81	41	40	1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표 7> 한-EFTA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312.9	-72.0	80.6	시계	462.9	3.3	11.4
자동차	236.8	21.0	5.8	농약및의약품	415.0	3.6	10.3
농약및의약품	154.6	75.2	3.8	원동기및펌프	282.2	-94.6	7.0
시계	25.3	2.8	0.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36.7	-108.7	5.9
고무제품	22.6	15.0	0.6	계측제어분석기	231.8	-24.4	5.7
금은및백금	20.9	7.9	0.5	어류	225.4	27.7	5.6
플라스틱 제품	20.9	2.9	0.5	정지기기	185.9	-78.8	4.6
컨테이너	18.1	77.4	0.4	기계요소	174	-8.3	4.3
무선통신기기	17.7	73.8	0.4	금은및백금	115	-88.4	2.8
기타화학공업제품	16.9	54.6	0.4	금속공작기계	91.8	-3.7	2.3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93.6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59.9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3) ASEAN

ASEAN은 FTA 체결 이후 교역이 2배 이상 늘어난 성공적인 FTA이다. 양국은 '07년 한-아세안 FTA를 계기로 무역규모가 FTA 체결 전인 '0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주요 교역품목은 다른 FTA와 달리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중간재 등을 아세안에 수출하고 완제품이나 가공품을 수입하는 위탁가공무역이 활성화된 결과로 수출입은행의 대아세안 투자 확산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8> 한-ASEAN 교역 현황

구 분		교역규모(억 불)			
		교역	수출	수입	수지
아세안	2013	1,353	820	533	287
(베트남	2014	1,380	846	534	312
포함	2015	1,199	749	450	298
10국)	2016	1,188	745	443	302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표 9> 한-ASEAN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반도체	11,605.6	5.3	15.6	반도체	4,818.0	-16.2	11.0
석유제품	7,178.6	-41.5	9.6	무선통신기기	4,007.3	46.9	9.2
무선통신기기	5,632.9	15.6	7.6	의류	3,636.8	5.1	8.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194.6	19.9	5.6	천연가스	2,765.4	-37.3	6.3
철강관	2,891.6	-7.0	3.9	석유제품	1,922.8	-18.4	4.4
합성수지	2,410.9	2.1	3.2	컴퓨터	1,817.2	7.8	4.2
기구부품	2,267.3	23.6	3.0	석탄	1,643.4	-12.0	3.8
전자응용기기	2,249.6	24.8	3.0	목재류	1,191.8	10.4	2.7
편직물	1,958.7	1.8	2.6	반도체제조장비	1,021.3	35.4	2.3
자동차	1,925.0	-12.3	2.6	신발	985.7	19.2	2.3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56.7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54.5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4) 인도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FTA를 계기로 무역규모가 FTA 체결 전인 '09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어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협정이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수입에 비해 2배 이상 많으며, 주요 교역품목을 보면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중화학공업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철강이나 휴대폰,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감소세에 있어 관련 산업이 인도에서 현지화 진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한-인도 교역 현황

구 분		교역규모(억 불)			
		교역	수출	수입	수지
인도	2013	176	114	62	52
	2014	181	128	53	75
	2015	163	120	42	78
	2016	158	116	42	74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표 11> 한-인도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철강판	1,295.9	-13.8	11.2	석유제품	983.0	13.4	23.5
무선통신기기	1,120.1	-34.7	9.7	알루미늄	505.3	1.5	12.1
자동차부품	905.5	-30.0	7.8	정밀화학원료	212.3	6.8	5.1
합성수지	901.1	-5.6	7.8	합금철선철및고철	178.9	-9.2	4.3
석유제품	448.9	-5.0	3.9	식물성물질	174.7	-43.7	4.2
기타석유화학제품	396.1	9.6	3.4	농약및의약품	163.6	-5.4	3.9
반도체	394.9	20.6	3.4	천연섬유사	120.6	-17.6	2.9
아연제품	353.1	55.1	3.0	아연제품	98.0	16.7	2.3
종이제품	303.1	19.8	2.6	기호식품	91.0	7.2	2.2
원동기및펌프	292.4	35.8	2.5	곡실류	85.2	-7.2	2.0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55.3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62.5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5) EU

EU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16년 기준 985억불로 ASEAN 보다 약간 적은 규모의 교역을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FTA 발효 직후에는 수출이 수입에 비하여 150억불 정도 많았으나 '12년 부터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있다.

주요 교역품목을 보면 산업이 유사하여 자동차의 수출입 비중이 크며 수출은 자동차부품, 선박류, 합성수지, 철강, 반도체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 수입은 의약품이나 계측제어분석기 등 하이테크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표 12> 한-EU 교역 현황

구 분		교역규모(억 불)			
		교역	수출	수입	수지
EU (28국)	2013	1,050	488	562	△74
	2014	1,141	517	624	△107
	2015	1,052	481	572	△91
	2016	985	466	519	△53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표 13> 한-EU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자동차	5,545.1	7.5	11.9	자동차	7,625.6	-12.1	14.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5,522.8	-54.7	11.9	농약및의약품	2,922.1	15.7	5.6
자동차부품	4,276.7	1.5	9.2	반도체제조장비	2,111.3	-5.3	4.1
합성수지	2,131.6	5.9	4.6	원동기및펌프	1,957.9	-17.7	3.8
철강관	1,797.4	9.1	3.9	계측제어분석기	1,794.4	-1.7	3.5
반도체	1,379.5	-13.9	3.0	기계요소	1,655.3	-23.4	3.2
석유제품	1,358.1	-24.9	2.9	자동차부품	1,615.3	8.7	3.1
건전지및축전지	1,198.8	25.6	2.6	정밀화학원료	1,250.6	-6.2	2.4
원동기및펌프	1,162.3	10.4	2.5	항공기및부품	1,159.9	-11.5	2.2
컴퓨터	1,110.3	29.5	2.4	반도체	965.1	-13.8	1.9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54.9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44.5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6) 미국

미국은 중국 및 아세안과 더불어 FTA의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큰 협정이다. 무역수지는 수출에 비하여 수입이 '13년~'16년 평균 240억불 정도 많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교역품목은 수출의 경우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 등이고 수입은 항공기류, 반도체, 농축산물, 천연가스 등으로 비교우위산업이 적절하게 분산되어 규모의 경제효과를 보이고 있다.

<표 14>한-미 교역 현황

구 분		교역규모(억 불)			
		교역	수출	수입	수지
미국	2013	1,036	621	415	205
	2014	1,156	703	453	250
	2015	1,139	698	440	258
	2016	1,097	665	432	233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표 15> 한-미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자동차	16,017.	-11.8	24.1	항공기및부품	3,806.0	14.3	8.8
무선통신기기	7,495.9	2.2	11.3	반도체	3,661.6	-6.7	8.5
자동차부품	6,377.6	-3.0	9.6	반도체제조장비	2,730.2	5.3	6.3
반도체	3,350.5	1.2	5.0	자동차	1,739.1	27.2	4.0
석유제품	2,400.7	-17.8	3.6	육류	1,465.6	11.1	3.4
고무제품	1,667.5	1.8	2.5	곡실류	1,429.5	-6.5	3.3
원동기및펌프	1,664.1	-1.5	2.5	계측제어분석기	1,395.0	-6.1	3.2
컴퓨터	1,638.2	16.2	2.5	식물성물질	1,379.5	5.1	3.2
철강판	1,379.9	-15.7	2.1	농약및의약품	1,238.4	9.9	2.9
플라스틱 제품	1,254.1	7.1	1.9	LPG	1,220.3	39.5	2.8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65.1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46.4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7) 중국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미국이나 아세안의 2배이고 무역수지 또한 미국이나 아세안의 약 2배 수준에 있다. '13년부터 '16년 평균 2,200억불 수준의 교역을 지속하고 있으나, FTA가 발효된 '16년에는 교역규모와 무역수지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

주요 교역품목을 보면 산업이 유사하여 반도체나 LCD,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입 비중이 크며 수출은 중화학공업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 수입은 철강판이나 의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표 16> 한-중 교역 현황

구 분		교역규모(억 불)			
		교역	수출	수입	수지
중국	2013	2,289	1,459	831	628
	2014	2,354	1,453	901	552
	2015	2,274	1,371	902	469
	2016	2,114	1,244	870	375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표 17> 한-중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불, %)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품 목	금 액	전년 대비	비 중
반도체	24,167.9	-14.8	19.4	반도체	11,261.1	-0.8	12.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2,284.9	-24.6	9.9	무선통신기기	6,663.3	-26.0	7.7
무선통신기기	6,303.1	-22.4	5.1	컴퓨터	5,870.4	8.3	6.7
합성수지	6,091.8	-3.7	4.9	철강판	4,027.1	-4.0	4.6
석유화학중간원료	5,847.1	1.0	4.7	의류	3,340.2	-3.0	3.8
자동차부품	5,354.9	-9.8	4.3	정밀화학원료	3,089.1	-1.4	3.6
전자응용기기	4,624.4	-28.8	3.7	전선	2,230.8	3.3	2.6
석유제품	4,592.6	3.8	3.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813.1	-65.5	2.1
컴퓨터	3,027.9	-8.9	2.4	기구부품	1,584.1	-13.6	1.8
플라스틱 제품	2,833.8	4.7	2.3	플라스틱 제품	1,360.2	6.5	1.6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60.4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47.4

* 자료 :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Ⅲ. FTA 기존 연구

국회전자도서관의 FTA라는 주제어 검색을 통해 나온 결과는 총 18,187개이고 그 중에서 학위논문 1,490개와 학술지논문 2,086개 총 3,576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FTA에 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첫째, FTA 수출성과 및 경제적 효과 등 사업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있었다.

둘째, FTA 산업별 효과에 대한 연구로 크게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품은 농수산물, 제조업, 섬유 의류업, 의약 제약업, 화장품, 기타 등으로 분류되고 서비스 분야는 교육 및 문화콘텐츠, 서비스산업, 금융산업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셋째,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로 원산지활용과 원산지검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원산지 활용에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원산지 검증은 원산지 검증과 원산지 리스크관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FTA 체결 지역에 관한 연구로 미국, 중국, EU, 일본, 칠레, 아세안 등으로 체결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FTA에 관한 기존연구 중 FTA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은 총 2개이다. 그 중 하나는 FTA시대에 경영분야 대응에 관한 메타분석으로 그 동안 FTA를 연구한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논문이다.⁹⁾ 이 연구에서는 FTA시대 경영분야의 대응에 관한 연구 성과를 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제외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주제로는 FTA시대에 경영분야의 대응에 관한 경영학 관련 전공분야별로의 전문성, 산업분야, 연구방법, 연구대상 국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학의 전공영역별로 FTA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며 둘째, 기존의 기반산업으로 대표되는 제조, 유통, 물류, 건설 쪽에 대한 경영적 대응이 미흡한 반면 신 성장산업들인 지식재산서비스, 콘텐츠, 디자인, 로봇 그리고 전문서비스인 교육, 금융, 관광산업에 대한 FTA 대응이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농수산업에 편중된 연구가 많고 이는 FTA 경영 연구에 대한 산업불균형의 심화와 오히려 비 경영분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방법론에서도 탐색적 연구에 편중된 정성적 연구와 아직은 미진한 정량적 연구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이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9) 김문희, “FTA시대에 경영분야의 대응에 관한 메타분석 : 2000년~2016년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 71호, 한국기업경영학회, 2017. 2.

정량적 연구가 데이터 축적을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부분에서도 미국, 중국에만 치중되어 있어 FTA 체결 국 뿐만이 아니라 향후 체결될 나라들에 대해서도 경영분야에서 앞장서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영 전반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전반적 산업분야에서의 연구와 비경영분야에서 FTA 경영적 접근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경영분야별로 전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FTA에 관한 기존연구 중 FTA 연구동향을 분석한 두 번째 논문은 FTA의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방향 제언 논문이다.¹⁰⁾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FTA 연구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KCI에서 검색어 FTA로 검색된 논문 중 학술지의 중분류 기준이 무역학에 속하는 논문 수 상위 8대 학술지 「관세학회지」, 「통상정보연구」, 「무역학회지」, 「무역연구」, 「국제통상연구」, 「국제상학」, 「e-비즈니스연구」, 「무역상무연구」의 340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간 FTA에 대한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 되어왔다. 둘째, FTA가 체결된 시기에 상관없이 최근 체결된 한-미, 한-EU, 한-중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셋째, FTA 양국의 체결과 관련하여 발효, 타결, 협상 등과 관련한 이슈가 제기될 때 연구도 유사한 시기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넷째, 한국(지역)에서의 연구도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섯째,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문헌고찰이 다수이며, 그 다음 계량경제학모형, 설문분석 순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추후 연구에는 FTA에 실제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외 우리나라 FTA 관련 연구는 FTA의 후생효과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혹은 정량적 분석에 초점을 두거나, FTA 활용이나 이행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가 간 FTA 추진의 동기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소 적었다.

FTA가 국가 경제 활성화 정책의 산물로 결정되어 지는 경제적 외생변수라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로 가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일국의 FTA 추진전략과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므로 국가 간 FTA 추진 가능성이나 영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인구, 조현준(2008)은 중국의 FTA의 추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Krugman (1991)의 FTA 후생효과에 대한 분석을 인용하였다. Krugman은 FTA 후생효과에 대한 분석을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해당 연구는 다음의 결론을 산출하였다.

10) 윤희영, “FTA의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방향 제언”, 전자무역연구 제13권 제3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5. 8.

우선 FTA 체결국가 간 거리기준을 중력모형에 확장하여 분석하여 보면, 국가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 증대하므로 거리가 가까운 두 국가일수록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두 국가가 국경을 접하거나 동일한 대륙 내에 위치할수록 관세 철폐에 따른 효용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 근접한 국가들 사이에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경제규모에 관한 중력모형의 확장 분석인데, 양국의 경제규모가 크거나 크기와는 상관없으나 비슷하다라도 FTA의 후생증진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FTA 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FTA 체결 당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FTA의 후생증진 효과가 크게 나타나 FTA 추진 가능성도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국의 부존자원을 경제지표로 중력모형에 확장하여 분석한 것인데, 국가 간 부존비율의 차이가 클수록 FTA의 후생증진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FTA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분석해냈다.

이홍식 외 3인(2004)은 한·중·일 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대신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EU 및 NAFTA 등의 체결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한·중·일 FTA 소득창출효과를 예측한 바 있다.

Hainmueller & Hiscox(2006)는 미국 국민의 국제무역에 대한 태도 분석을 위해 중력모형 확장모형을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을 설명변수로 적용하여 상관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김세영 외 1인 또한 자원부국과 한국의 FTA 추진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의 확장모형을 통해 상대국의 자원부존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상관관계가 있음을 분석해 내었다.

최근에 발표한 손용정(2012)은 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간의 무역수지 결정요인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중력모형을 통해 총교역·수출의존도 등의 설명변수를 도출해냈다.

위에서 살펴 본 FTA 사업성과, FTA 산업별 효과,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 등의 주제는 FTA 체결지역과 중복 체크되어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라고 하면 FTA 사업성과와 FTA 체결지역 중 한중 FTA에 중복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국회전자도서관 FTA 검색결과 학위논문은 총 1,490개 검색되었다. 중복체크하긴 했지만 FTA 체결지역에 관한 연구가 전체 연구 중 52.7%를 차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FTA 산업별 효과로 상품 17.6%, 서비스 4.7%로 전체 연구 중 22.3%로 그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 FTA 원산지 리스크관

리 연구가 15.3%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FTA 사업성과에 대한 연구는 전체 기존 연구 중 9.7%를 차지하여 연구가 가장 많이 되지 않은 분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FTA 체결지역에서는 한-중 FTA 연구가 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미 FTA 연구가 27%로 이 두 지역 FTA 연구가 전체 지역의 74%를 차지해 한-미 FTA와 한-중 FTA 연구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지역 연구로는 한-EU FTA(6.8%), 한-일 FTA(6.1%), 한-칠레 FTA(4.7%)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밖의 연구로는 한-아세안 FTA, 한-캐나다 FTA, 한-베트남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FTA, 한-호주 FTA 연구가 있었다.

또한 지역별 FTA 연구는 시간흐름에 따라서도 뚜렷한 양상을 보였는데 한-일 FTA, 한-미 FTA, 한-중 FTA 순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FTA 산업별 효과에서는 상품에 관한 연구 중 농수산물이 47%를 차지해 특정상품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조업, 의약제약업, 섬유 의류업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에서는 원산지 활용이 13.1%, 원산지검증이 2.2%로 원산지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인 원산지검증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전자도서관 검색결과 학위논문에서 실증연구는 대부분 FTA 사업성과 정도에서만 연구되고 있고 연구방법도 문헌연구 위주로 되어 있으며 연구지역도 아주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8> 국회전자도서관 학위논문 FTA 검색 결과

연구주제	세부분야	학위논문 수	
FTA 사업성과	사업성과, 수출성과 등	148	
FTA 산업별 효과	상품	농, 수산물	126
		제조업	78
		섬유, 의류업	16
		의약, 제약업	24
		화장품	9
		철강, 정유 등 기타산업	15
	서비스	교육, 문화콘텐츠	22
		서비스산업	29
		금융산업	21

연구주제	세부분야		학위논문 수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	원산지활용	원산지규정	143
		원산지제도, 관리	57
	원산지검증·리스크	원산지검증	22
		원산지리스크관리	11
FTA 체결 지역	한-미 FTA		217
	한-중 FTA		378
	한-EU FTA		55
	한-칠레 FTA		38
	한-일 FTA		49
	한-아세안 FTA		20
	한-캐나다 FTA		5
	한-베트남 FTA		13
	기타(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29
검색논문 수			1,525개

국회전자도서관 FTA 검색결과 학술지논문은 총 2,086개 검색되기는 하였으나 FTA와 관련이 없는 논문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중복체크하긴 했지만 FTA 체결 지역에 관한 연구가 전체 연구 중 58.7%를 차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FTA 산업별 효과로 상품 12.1%, 서비스 5.7%로 전체 연구 중 17.8%로 그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 연구가 14.2%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FTA 사업성과에 대한 연구는 전체 기존 연구 중 9.4%를 차지하여 연구가 가장 많이 되지 않은 분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FTA 체결지역에서는 한-미 FTA 연구가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중 FTA 연구가 24.8%로 이 두 지역 FTA 연구가 전체 지역의 59.2%를 차지해 한-미 FTA와 한-중 FTA 연구에 치우쳐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지역 연구로는 한-EU FTA(15.9%), 한-일 FTA(6.7%), 한-칠레 FTA(4.5%)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밖에 연구로는 한-아세안 FTA, 한-캐나다 FTA, 한-베트남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FTA, 한-호주 FTA 연구가 있었다.

또한 지역별 FTA 연구는 시간흐름에 따라서도 뚜렷한 양상을 보였는데 한-일 FTA, 한-미 FTA, 한-중 FTA 순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FTA 산업별 효과에서는 상품에 관한 연구 중 농수산물이 50.5%를 차지해 특정 상품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조업, 의약제약업, 섬유류업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

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에서는 원산지 활용이 12.7%, 원산지검증이 1.5%로 원산지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인 원산지검증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전자도서관 검색결과 학술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증연구는 대부분 FTA 사업성과 정도에서만 연구되고 있고 연구방법도 문헌연구 위주로 되어 있으며 연구지역도 아주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9> 국회전자도서관 학술지 FTA 검색 결과

연구주제	세부분야		학위논문 수
FTA 사업성과	사업성과, 수출성과 등		154
FTA 산업별 효과	상품	농,수산물	100
		제조업	39
		섬유,의류업	13
		의약,제약업	19
		화장품	5
		철강, 정유 등 기타산업	22
	서비스	교육, 문화콘텐츠	28
		서비스산업	51
금융산업		14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	원산지활용	원산지규정	72
		원산지제도, 관리	136
	원산지검증-리스크	원산지검증	20
		원산지리스크관리	4
FTA 체결 지역	한-미 FTA		331
	한-중 FTA		239
	한-EU FTA		153
	한-칠레 FTA		43
	한-일 FTA		65
	한-아세안 FTA		29
	한-캐나다 FTA		4
	한-베트남 FTA		7
	기타(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92
검색논문 수			1,640개

IV. FTA 연구동향 분석 및 시사점

일반적으로 연구 논문은 연구목적별로 개념연구, 이론연구(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심리학 등 수학적 모델 개발 및 응용), 서베이 등 실태조사, 상관관계분석(추세 분석), 인과관계분석(이론검증), 규범적연구(문제해결)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형태별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사례조사, 법리분석, 계량분석 등으로 구분한다.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한 검색결과 FTA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FTA 체결 지역 분석에 치중되어 있고 연구목적별로는 개념연구 위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인 연구형태별로는 문헌조사 위주로 연구되고 있고, 연구지역도 중국과 미국 등 특정 국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국내와는 다른 이질적인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연구될 영역이 아주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 FTA 분야 기존 연구의 흐름에 대해 분석해 보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FTA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증대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 본 문헌조사에 따르면 기존 연구는 FTA 지역연구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연구들은 농수산물 효과를 제외하고 대체로 초기적 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이론적 근거 또는 이론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론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FTA 리스크관리 관련 모델 개발과 실증분석 영역도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또한, FTA에 대한 실용적 측면의 연구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사례를 소개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미미해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FTA 관련 사례의 집적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합적 관점의 FTA 리스크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FTA 관련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세밀히 살펴보아 다양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적 리스크관리는 기존의 개별적 리스크관리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FTA 관련 각각의 리스크 유형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적 리스크관리에 대한 연구 영역은 다양하고, 의사결정측면에서의 리스크관리 구성요소 및 리스크관리 단계에 맞춘 통합적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FTA에 대해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국가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는 산업별 효과에서도 농수산물 등 특정 상품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지역연구에서도 한미와 한중 FTA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별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그 동안 FTA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FTA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국회전자도서관의 FTA라는 주제어 검색을 통해 나온 결과 중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총 3,576개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4가지 주제로 분석되었다.

첫째, FTA 수출성과 및 경제적효과 등 사업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있었다.

둘째, FTA 산업별 효과에 대한 연구로 크게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품은 농수산물, 제조업, 섬유의류업, 의약제약업, 화장품, 기타 등으로 분류되고 서비스 분야는 교육 및 문화콘텐츠, 서비스산업, 금융산업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셋째, FTA 원산지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로 원산지활용과 원산지검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원산지 활용에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원산지 검증은 원산지 검증과 원산지 리스크관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FTA 체결 지역에 관한 연구로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 한일 FTA,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 등으로 체결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한 검색결과 FTA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FTA 체결 지역 분석에 치중되어 있고 연구목적별로는 개념연구 위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인 연구형태별로는 문헌조사 위주로 연구되고 있고, 연구지역도 중국과 미국 등 특정 국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국내와는 다른 이질적인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많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리스크관리 관점에서 연구될 영역이 아주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즉, 통합적 관점의 FTA 리스크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FTA 관련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세밀히 살펴봐야 다양한 리스크관리 수단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적 리스크관

리는 기존의 개별적 리스크관리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FTA 관련 각각의 리스크 유형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적 리스크관리에 대한 연구 영역은 다양하고, 의사결정측면에서의 리스크관리 구성요소 및 리스크관리 단계에 맞춘 통합적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권순국, “FTA 원산지규정상 수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수입자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7. 6.
- _____, “FTA 원산지증빙서류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6.
- _____,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6.
- 김덕중 · 김희호,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무역학회지 제42권 제1호, 통권 제120호, 한국무역학회, 2017. 2.
- 김문희, “FTA시대에 경영분야의 대응에 관한 메타분석 : 2000년~2016년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71호, 한국기업경영학회, 2017. 2.
- 김세영 · 양경희,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정책토론 및 학술대회, 2010.
- 김정희, “섬유/의류 산업의 FTA 대응전략(한-미, 한-중 FTA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8권 제2호, 통권 100호, 한국의류산업학회, 2016. 4.
- 김형철 · 김희철 · 라공우, “한·중 각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제41권 제1호, 통권 제115호, 한국무역학회, 2016. 2.
- 박순찬,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업 수출집약도(intensive margin)와 수출다양도(extensive margin)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6. 9.
- 손용정, “한국과 FTA 추진국간의 무역수지 결정요인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4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9.
- _____,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6.
- 손지영, “FTA특혜 원산지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수입자 FTA 관세채무 부담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8.
- 윤희영, “FTA의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방향 제언”, 전자무역연구 제13권 제3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5. 8.

- 이석동 · 이춘수, “한·미 FTA 섬유류 협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무역학회지 제40권 제2호, 통권 제111호, 한국무역학회, 2015. 4.
- 이순철, “로짓분석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한-인도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 대한 인식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2호, 국제지역학회, 2010. 6.
- 이 윤 · 김제선 · 정홍주,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리스크 식별 및 체크리스트 개발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6.
- 이인구 · 조현준,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 실증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8. 4.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6-11, KIEP, 2006.
- 이홍식 · 이종화 · 신관호 · 왕윤종,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임목삼, “한·인도 CEPA 수출입유망품목의 효과 연구 : 2010년 수출입실적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2.
- _____, “중소기업의 FTA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4권 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9.
- _____, “구매확인서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8. 3.
- 임목삼 · 박현재, “How to Strategize ROO Schemes for Korea-Indonesia CEPA”, 무역상무연구 제6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12.
- 임목삼 · 임성철, “한·중 FTA와 既체결 주요 FTA의 원산지 규정과 절차 비교 연구 : 미국, EU, ASEAN FTA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2.
- _____, “FTA에서 원산지 증빙서류 증명 책임에 관한 일고”, 무역상무연구 제7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8. 2.
- 임목삼 · 최미수, “상품분야 FTA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무역상무연구 제7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5.
- 조홍석 · 이정윤, “한·미 FTA의 무역창출효과 사례 및 시사점”, 국제상학 제32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7. 3.
- 최미수 · 임목삼, “한국의 FTA 효과와 추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5. 2.
- 최창범, “수출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과 원산지 검증성과

- 간의 관계”, 무역학회지 제40권 제5호, 통권 제114호, 한국무역학회, 2015. 11.
- Baier, S. L. and Bergstrand, J. H., “Economic Determinants of Free Trade Agre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64, 2004.
- Hainmueller, J. and Hiscox, M. J., “Learning to Love Globalization: Education and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0(2), 2006.
- Krugman, P., “The Move Toward Free Trade Zone”, *Policy Implications of Trade and Currency Zone*, 1991.
- Lee, H. S. et al., *An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IEP, 2005.

ABSTRACT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Risk Management in FTA

Mok-Sam LIM · Mi-Soo CHOI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every important academic research on risk management in FTA and to suggest a future area for further research. This research area seems to focus on conceptual study or fact finding rather than on theory development or empirical research on causal relationship or theory testing.

The National Assembly Digital Library analyzed the results of 3,576 researches on thesis and journals from the results of the FTA. Research on FTA is analyzed in four major themes.

First, there have been previous studies on business performance such as FTA export performance and economic effect.

Second, analyzed the effects of FTA in product and service. The products are classified into agricultural, marine products, manufacturing, textiles and clothing, medicinal pharmaceuticals, cosmetics, and others. Services are classified into educational and cultural contents, service industry and financial industry.

Third, research on the risk management of FTA Origin is broadly classified into the use of country of origin and the verification of origin, and the use of origin includes the study of rules of origin and systems of origin and management. Origin verification was divided into origin verification and origin risk management.

Fourth, study on the conclusion area of the FTA, studies were conducted on areas such as Korea-US FTA, Korea-China FTA, Korea-EU FTA, Korea-Japan FTA, Korea-Chile FTA, and Korea-ASEAN FTA.

Search results through the FTA, focused on analyzing the FTA area and concept research by research purpose. In addition, research methods are mainly focused on documentary survey, and research areas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countries such as China and USA.

This implies a necessity for a future development in that research area. Other areas for future research may include case research on actual failures in FTA, proactive risk management strategy, and integrated risk management for export companies. Risk management in FTA may help investment expansion, and that is why research on the issue matters.

Keywords : FTA, Free Trade Agreement, Management of Origin, Risk Management